

마약류 남용자의 일반적 증상은 어떨까요

1. 중추신경 흥분제(코카인 및 암페타민류<히로뽕>)

가. 코카인 남용자

-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찾는다. 각종 대용주사기를 가지고 있다.
- 지혈대(고무벨트, 끈), 솜 등을 가지고 있다.
- 약물을 녹이기 위해 그을린 숟가락이나 병마개, 병 등을 가지고 있다.
- 옷소매에 주사로 인한 팫자국이 있다.
- 특히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이 있다.
- 반복주사로 인한 상처가 있다.
- 남성은 주로 주사부위에 문신을 하며 여성은 화장을 하여 상처자국을 가린다.

나. 암페타민류 남용자

-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찾는다. 각종 대용주사기를 가지고 있다.
- 지혈대(고무벨트, 끈), 솜 등을 가지고 있다.
- 약물을 녹이기 위해 그을린 숟가락이나 병마개, 병 등을 가지고 있다.
- 옷소매에 주사로 인한 팫자국이 있다.
- 특히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이 있다.
- 반복주사로 인한 상처가 있다.
- 남성은 주로 주사부위에 문신을 하며 여성은 화장을 하여 상처자국을 가린다.

여성은 화장을 하여 상처자국을 가린다.

- 출담배를 피운다.
-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.

2. 중추신경억제제(아편, 몰핀, 텍스트로메토르판, 날부핀)

-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찾는다. 각종 대용주사기를 가지고 있다.
- 지혈대(고무벨트, 끈), 솜 등을 가지고 있다.
- 약물을 녹이기 위해 그을린 숟가락이나 병마개, 병 등을 가지고 있다.
- 옷소매에 주사로 인한 팫자국이 있다.
- 특히 팔꿈치 안쪽에 주사자국이 있다.
- 반복주사로 인한 상처가 있다.
- 남성은 주로 주사부위에 문신을 하며 여성은 화장을 하여 상처자국을 가린다.

3. 안정제 남용자

- 흰색, 황색, 흑색, 녹색 등과 같은 다양한 색깔의 알약이나 캡슐을 가지고 있다.
- 상표가 붙어 있는 안정제의 빈 알약통을 가지고 있다.

4. 진정, 수면제 남용자

• 술취한 것 같은 제증상이 나타나나 호흡시 술냄새는 없다.

- 비틀거린다.
- 계속해서 잠을 잔다.
- 명청해 보인다.
- 발음이 분명치 않다.
- 동공이 확대된다.
- 집중력이 감소한다.

5. 흡입제 남용자

• 접착제 또는 여러가지 휘발성 물질들을 찾는다.

• 손톱, 의복, 주머니 안쪽에 접착제가 묻어 있다.

• 커다란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.

• 손수건이나 옷조각을 가지고 있다.
• 휘발성 물질의 냄새가 난다.
• 접착제가 묻어 있는 긴 양말을 가지고 있다.

• 콧물과 눈물을 과도하게 흘린다.
• 발음이 분명치 않다.
• 자주 잘 넘어진다.
• 행동에 있어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난다.(취미나 운동에 대한 관심저하, 빈번한 결석, 급격한 학교성적 저하 등)

• 가벼운 증상으로는 침울해지거나 주변에 대하여 무관심해진다.

6. 대마초 남용자

•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옷에서 풀잎 탄 냄새가 심하게 난다.

- 각종 흡연 파이프를 소지하고 있다.
- 주머니안에 작은씨(대마씨)가 있다.
- 궐련종이(보통 갈색)를 가지고 있다.

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.

• 학교 또는 직장 출근, 작업의 질, 성적, 작업생산성, 규율 등에 갑작스런 변화를 보인다.

•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이 폭발한다.

• 전체적인 행동과 태도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온다.

• 옷차림 등 외모가 보기 쉽게 변하거나 개인위생에 무관심하게 된다.

• 동공의 이상을 감추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장소나 시간에도 색안경을 쓴다.

• 주사자국을 감추기 위해 소매가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.

• 부모나 친구, 직장동료로 부터 평소와 달리 돈을 자주 빌린다.

• 항상 즐리운 듯한 태도나 명청한 상태로 앉아서 허공을 바라본다.

• 주사자국을 감추기 위해 소매가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다.

• 담배나 알콜성 음료 또는 두 가지 모두 사용이 증가한다.

•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거나 아주 없다. ④